



예배 & 모임 안내

예배/모임	시간	장소
주일1부예배	주일 9AM	Delbrook Fir Room
주일2부예배	주일 11AM	Delbrook Arbutus Room
새벽예배	월-금 6AM	Canyon Heights Church
유치부예배	주일 11AM	Delbrook Ash Room
아동부예배	주일 11AM	Delbrook Ash Room
청소년부예배	주일 11AM	Delbrook Fir Room
청년부모임	주일 12:30PM	Delbrook Ash Room
헵시바금요집회	매월마지막금8PM	Canyon Heights Church
중보기도모임	화요일 10AM	Canyon Heights Church
성경읽기모임	월요일 10AM	Canyon Heights Church
아름모임	월 2회	아름별로
양육과정	상반기, 하반기	Canyon Heights Church

새벽녘(Dawn)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화(Arum lily)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된
교회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교회

NorthShore ArumDawn Church

주 · 일 · 예 · 배

Sunday Worship Service

1부 : 오전 9시 / 2부 : 오전 11시		※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	성령강림 후 7주	
※여는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우리의 기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대표기도	김선영 집사	
말씀읽기	빌립보서 4:8-13 (신약 323)	
설교	"일체의 비결" 정요셉 목사	
결단의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봉헌과 기도	헌금위원 (박선영 권사)	
인사와 광고	아름다운교회 소식	
※파송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축도	예배와 삶을 연결하며	정요셉 목사

HAPPY TOGETHER 2018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
가는 교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 가느니라"
(엡 2:22)

아름다운교회

NorthShore ArumDawn Church

- ✓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 ✓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육
- ✓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행하는 섬김
- ✓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사귄

교회에 땅에 소망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정요셉 목사 (담임목사)	778.839.7414	
서민수 목사 (유치부/아동부)	604.518.5452	
김경현 목사 (교육/청소년부)	778.522.1842	
김철희 전도사 (찬양/청년부)	236.777.8084	
CONTACT		
PHONE	: 778.960.4086 / 778.839.7414	
홈페이지	: www.arumdawnchurch.com	
E-MAIL	: info@arumdawnchurch.com	
주일예배장소	: Delbrook Community Centre	
주중모임장소	: Canyon Heights Church	

헌금은 들어오시며 준비된 헌금함에 정성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아름다운교회 소식 및 나눔

1. 주일인사 / 새가족 환영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등록 또는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 2/4분기 제직회

다음 주일(7/15)에 2/4분기 정기제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3. 감사

창립2주년 감사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 교육부 여름행사 일정

유치부, 아동부 VBS : 8/24(금)-26(주일) Delbrook Rec.
청년부 수련회 : 9/2(주일)-3(월)

5. VBS(여름성경학교) 교사와 봉사자 모집

VBS(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교사와 Volunteer로 섬겨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서민수 목사)

6. 심방

심방이 필요한 가정이나 사업장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7. 방학

7, 8월 동안에는 햄시바금요집회와 아람모임은 없습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출타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친교간식

이번주 친교간식은 백승권 권사, 최명애 권사 가정에서 (범사감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의:김담희 집사)

다음주 예배위원

기도	7/15 신은경 집사 7/22 황성순 집사
안내	안내위원
헌금	지도선 권사

향기로운 예물 (7/1)

주일헌금	\$896.95
십일조	\$2,458.42
감사헌금	\$710.00
선교헌금	\$20.00
기타헌금	\$20.00
합계	\$4,105.37

수표(Check)로 현금하실 경우,
Payable to에 N.A.D.C. 또는
Northshore Arum Dawn Church로
현금해 주십시오.

후원선교사&봉사단체

한광득, 이순옥 선교사 (카테말라)
조혁준, 이지은 선교사 (나나이모)
은혜의 집 (Surrey)
희망의 집 (Vancouver)

새벽 만나 (새벽예배는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진행됩니다)

7/9 (월)	7/10 (화)	7/11 (수)	7/12 (목)	7/13 (금)
행 14:1-18	행 14:19-28	행 15:1-11	행 15:12-29	행 15:30-41
정요셉 목사	정요셉 목사	정요셉 목사	정요셉 목사	서민수 목사

"일체의 비결"

빌립보서 4:8-13

섬세한 것은 대개 아름답다. 그리고 예민하다. 우리말이 대표적이다. 한글은 점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이뻐"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적당한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는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커녕 썩어 붙게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결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말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를 노릇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얼마나 따뜻한 온도인가?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절망의 구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 당신의 말은 몇 도인가?

<언어의 온도> 중에서.